

# 한일아시아기금 뉴스레터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2008년 4월 No.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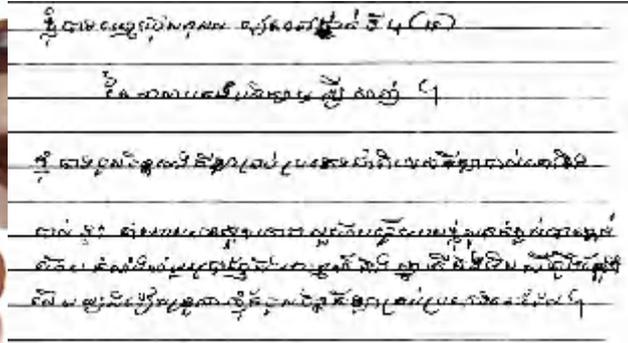
## 캄보디아 소식

### 1 체육시설 그 이후

작년 9 월에 철봉이, 그리고 11 월에 모래운동장 (Jumping Space) 과 배구 코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편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 ~차                 | 레~ |
|--------------------|----|
| 캄보디아 소식            |    |
| 체육시설 그 이후          | 1  |
| 유치원 공사 시작          | 2  |
| 아시아 미래학교의 현황       | 3  |
| 제 4 회 「비빈 모임」      | 4  |
| One Korea Festival | 5  |
| 스태프 소개             | 5  |
| 학교 내에서의 모금활동       | 6  |
| 사무연락               | 7  |



코살 군의 크멜어 편지

저는 홀 코살, 루세이산 초등학교 4 학년입니다.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배구가 제일 좋아요. 키도 커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스포츠를 아주 좋아해요.

저는 슝 큰테아, 13 살입니다.

쉬는 시간에 배구나 높이뛰기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더 튼튼해지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 외에도 몇 통 더 있었습니니다. 쉬는 시간의



즐거움이다, 건강에 좋다는 의견 외에 친구들과 친해졌다고 하는 아이가 몇 명 있어서 기대 이상의 기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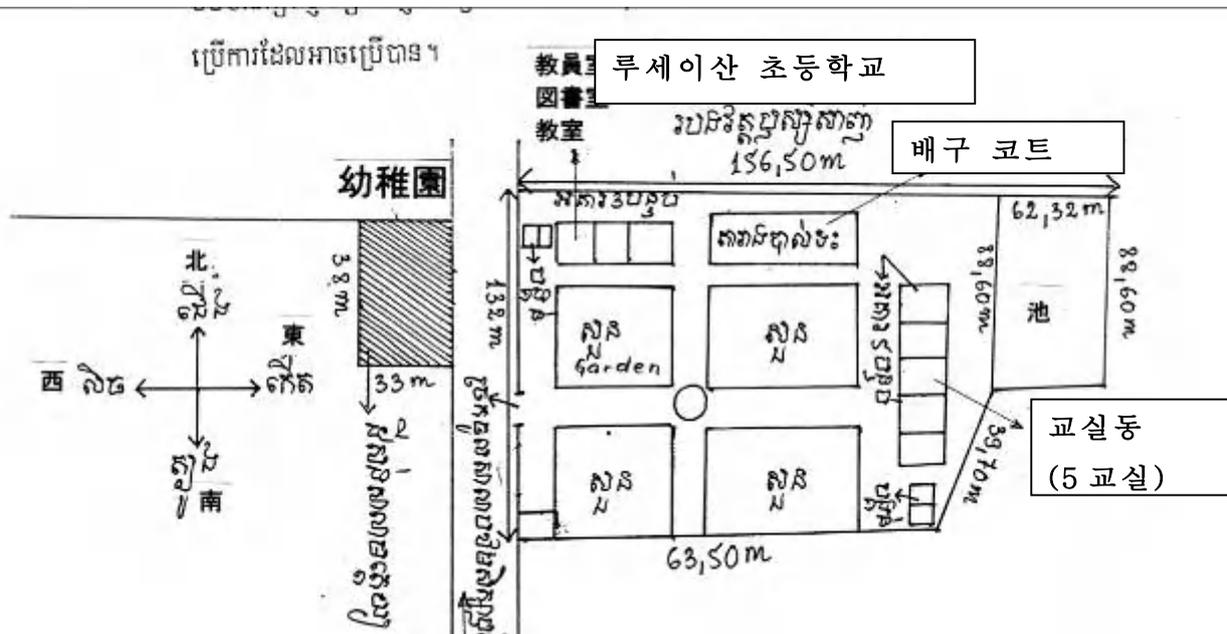
## 2 유치원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

지난 봄부터의 현안사항이며, 여러가지 이유로 시작이 지연되었던 유치원 공사가 드디어 지난 3 월 28 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완공은 7 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우리가 운영하는 식자(識字)학교·아시아미래학교의 수료생이 다니는 인근 마을의 루세이산 공립 초등학교의 부속형태로 개설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기금의 현지 제휴 단체인 “ 폰르크 타마이의 디렉터인 리티 씨가 루세이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프랙커 마을의 촌장님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마을의 스님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며 개설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 취학 전 예비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b :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으므로 아이들이 학교에 익숙해진다.
  - c : 아이들이 집에 없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가 일할 시간이 생긴다.
- \* a 와 b 는 취학 후 학업이 뒤쳐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건물은 목조 단층으로 16 m×9 m, 144 m<sup>2</sup>이고 2개의 교실이 있으며 학교와는 아래 그림과 같은 위치관계에 있습니다.

이 도면은 유치원 토지가 루세이산 초등학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권리서 지도의 한 부분입니다.



### 2 - 1 비용에 관해

최종 계약 금액은 합계 \$21,292 (이 중 재료비 \$17,104, 공비 \$4,188) 입니다. 작년 6 월 견적에서는 \$14,300, 올해 1 월에는 \$19,300로 가계약했지만 송금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시간이 걸려서 본 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금액이 되었으며 당초보다 \$7,000나 늘어나

버렸습니다. 엔고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엔 환산으로 차액이 48 만엔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2 - 2 계약 내용에 관해

a : 시청의 승인

유치원 개설은 프놈펜시 교육·청년·스포츠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이 승인서에는 학생들의 가족 375 세대의 요구에 의해 승인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b : 토지 소유권

루세이산 초등학교의 소유임을 권리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c : 공사 계약서

공사 계약서에는 리티씨와 공사업자 이외에도 루세이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스님이 보증인 자격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공사업자인 샘 천 씨는 학교가 있는 플렉커 마을의 주민이며 신용 면에서나 애프터서비스 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불 조건은 총액의 40%를 선불로 지급하며 공사 진도에 따라 30%, 20%씩 지불합니다. 잔액 10%는 공사 완성 6개월 후에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전부 다 리티씨가 생각낸 것으로 리티씨의 능력에 다시 한 번 감탄했습니다.



공사 개시 직후의 기초공사



4 월 21 일에는 외벽 벽돌 쌓기 시작

## 3 아시아 미래학교의 근황

선생님 두 분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 시분 선생님

학생은 4 명이고 그 중 한 명이 남학생입니다. 현재 초급·1·2·3 과 4 권 짜리 식자교육 교과서 「1」의 레슨 2 4 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 산바트 선생님

학생은 6 명이고 그 중 한 명이 여학생입니다. 교과서 「1」의 레슨 4 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 두 선생님의 이야기

소 돌보거나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찾기, 부모님의 장사 돕기 등으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오사와)

## 「제 4 회 비빈 모임~친구 만들기~」

4월 19일(토)□「제 4 회 비빈 모임 ~ 친구 만들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50명이나 되는 손님이 참석해 주셔서 스태프를 포함해서 모두 61명! 지난번보다 1시간 연장해 3시간 동안 "상대방 소개" "티타임" "주제에 따른 그룹 디스커션" "합창"을 즐겼습니다.

7 그룹으로 나누어 "상대방 소개"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긴장하시는 분, 말이 통하는지 어쩐지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점차 긴장이 풀려 모두 상대방을 알리고 이야기에 열중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공통적으로 "친구를 만들고 싶다" "일본어(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티타임"에서는 참가자들이 가져 온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실 안은 시끌벅적!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이 섞여있는 교실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고 대화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그룹 디스커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관습, 또 한국인이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일상생활에서 느낀 두 나라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그룹은 술이란 주제로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일본에서는 20살이 되어야만 술을 마실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대학 진학과 동시에 술이 허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부럽군요. 또 일본에서는 건배는 맨 처음 한번만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실 때 마다 건배한다고 하는 등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장자에게 술을 따르는 습관은 한일 공통이었습니다. 한국사람 관점에서는 "일본 사람이 편의점에서 산 술을 그 앞에서 마시는 모습이나 지하철 안에서 마시는 모습이 많이 신기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공원이나 집에서만 마신다고 하며 "장소를 불문하고 술을 마시는 일본사람!?"이라는 관점이 재미 있었습니다. 그룹 내에서의 디스커션 후 각 그룹 단위로 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서는 "한국의 병역의무는 힘들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이 강해진다. 커플들은 병역을 계기로 거의 다 헤어진다. 군대 안간 남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한테 사위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은 지하철 요금이 싸고 타는 방법도 간단하지만 일본은 지하철과 전철이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끼리만 또 한국 사람끼리만 있으며 모르거나 느끼지 못한 생각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디스커션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비빈 모임을 통해 알게된 관습, 문화, 가치관을 다음에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널리 알려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사람 이외에도 중국인 스태프인 이 군. 또 일본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말레이시아 분도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국적에 상관없이, 또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비빈 모임이기를 약속합니다. 한일 교류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 국적을 뛰어넘어 친구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의 참가를 스태프 일동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 첫 참가! One Korea Festival

3월 30일(일)에 동경 요요기공원에서 열린 “원코리아 2008” (정식명칭 ONE KOREA FESTIVAL TOKYO 2008)에 참가했습니다. 제일교포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다함께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사카에서는 매년, 동경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는 축제입니다. 동경 시내 불고기집들이 노점을 차리고 커다란 냄비에 만든 찌개, 한반도를 기원으로 삼는 아티스트들의 연주, 그리고 회장내에는 사물놀이 리듬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곳에 부스를 차려 아시아기금의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스태프 외에도 9명이나 자원봉사로 참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부스는 굉장히 활기찼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부스에 있던 스태프들은 모두 손난로를 들고있을 만큼 겨울같은 추위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팜플렛을 배부하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주) 생활종합 서비스에서 기증받은 입욕제를 모금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린 결과 모금 총액이 17,092 엔이나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사에서 2~3천엔 모이면 많은 편이라 입욕제 효과에 놀랐습니다.(야자키)

## 스태프 소개

### 회사원 오마치 타쿠야

처음 뵈겠습니다. 한일양국이 협력하여 아시아를 위해서 활동하며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를 쌓아간다는 한일아시아기금의 이념에 공감하여 2월부터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오마치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역사 시간에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 역사 교과서를 읽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에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과 동시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그 시간 후에 한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로의 역사를 알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조금만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대학교에서는 한국연구를



전공했습니다. 다행히도 어학 공부나,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 년에 교환학생으로 체류한 한국에서의 1 년을 통해 많은 한국 친구를 사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면서 한일관계를 논의할 때는 “얼굴이 보이는” (직접 아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미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의 책임이 적지 않으며 한일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그 역할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고나서 한국과의 교류가 점점 적어질 즈음 아시아기금과의 만남을 통해 이러한 마음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한국 양국이 협력하여 아시아에 기여한다는 이 모임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것(홈페이지의 한국어 번역을 하고 있음), 또 이 활동을 통해 국적이나 나이를 뛰어넘은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교내에서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 다이세이가쿠인대학교 심리학과 3 학년 오다 나리히사

저는 1 월 25 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다니고있는 대학교에서 한일 아시아기금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학교 규모도 작는데다가 시험기간과 겹쳐져 과연 성과가 있을까 하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활동 시간은 점심시간 30 분간이며 자리 또한 통행이 별로 없는 정면 현관 부근으로 지정받아 모금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첫 날은 비가 와서 사람이 없는데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날 모금액은 122 엔!!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 때문에 낙담했지만 3 일째부터는 친구가 도와 주어서 모금 총액이 드디어 4 자리수에 달했습니다.

그 후 학생들 가운데 저희와 같은 NPO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금액은 적지만 한일아시아기금 홍보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 제 5 회 비빈 모임 안내

6 월 21 일(토) 14 시부터 17 시까지 동경 센고쿠 아시아문화회관에서 실시합니다. 종료후 친목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제목에” 비빈 모임 참가희망”, 본문에 이름(한글과 알파벳), 국적, 성별, 나이, 친목회 참가여부를 기입하고 아래에 있는 “문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무연락

08년 1월 16일~4월 7일 동안에 회비·기부금을 내주신 분

|      |       |      |       |      |       |       |        |
|------|-------|------|-------|------|-------|-------|--------|
| 阿南系代 | 遠藤保弘  | 大町卓也 | 小長井晶子 | 鋤柄慎吾 | 津布久元子 | 古川かおる | 山根 寛   |
| 油谷友加 | 王 嶺   | 小川 英 | 小林栄次郎 | 高木 修 | 長島 和子 | 星 光雄  | 山本 トシミ |
| 荒川雄彦 | 大澤 龍  | 小田成久 | 佐藤 和之 | 高木桂子 | 平塚 千尋 | 堀川 泰義 | 吉野 早苗  |
| 井上卓也 | 大坪 玲子 | 神田幸子 | 城田 実  | 田中節子 | 福本 正勝 | 矢崎 芽生 |        |

입회·기부금 안내

활동회원 : 연회비 5,000엔(학생,미성년자 2,000엔)  
 찬조회원 : 연회비 한구좌 5,000엔(학생, 미성년자 한 구좌2,000엔)  
 법인회원 : 연회비 한 구좌10만엔  
 기부금 : 2,000엔 이상

<우체국(일본)송금계좌>  
 계좌번호 00180-2-25153  
 계좌명 한일아시아기금

• 활동회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분, 총회 의결권 있음.

• 찬조회원:정기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분

지원해주신 분들께는 “ 한일 아시아 기금 뉴스레터 ” 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내 경비는 뜻을 같이하는 스태프의 기부금으로 마련되며 외부 지원금은  
 전액 캄보디아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문의>

I love Asia Fund(한일 아시아 기금)

Asia Bunka Kaikan, 2-12-13 Komagome, Bunkyo-ku, Tokyo

Zip code 113-0021

Tel:090-4456-2942 (Osawa) , Fax:03-3946-7599 (Asia Bunka Kaikan)

E-mail: [jkaf@ml.infoseek.co.jp](mailto:jkaf@ml.infoseek.co.jp)

HP: [iloveasafund.com/japan/](http://iloveasafund.com/japan/)

발행인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한일아시아기금·일본대표이사